

영어교육 26호
1983년 8월

조기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 취학전 아동들의 영어읽기를 중심으로 —

이 우 로
(한 남 대)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취학전(6세전) 아동들의 탁월한 읽기 능력을 이론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보여 주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 취학전(6세전) 아동들에게는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습득장치)라는 어떤 선천적 언어능력이 있으며 이들에게 LAD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영어와 국어의 읽기를 쉽게 재미있게 정신적 부담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2) 실제로 4살 7개월 된 필자의 딸 유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영어와 국어의 읽기를 가르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 났는지를 서술한 다음, (3)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몇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해명하여 둔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영어교육”을 “국민학교영어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Lado(1976), Söderbergh(1977), Andersson(1981)과 같은 조기외국어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기” 즉 “early”는 “6세전” 또는 “취학전”을 의미한다. 필자도 이 논문에서 이들과 같이 “조기”를 “취학전” 또는 “6세전”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I. LAD와 영어/국어의 조기읽기교육

어린이들은 신비한 언어습득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이 신비한 언어습득능력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나 이 신비한 능력이 어린이들에게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린이들에게

* 이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이 선천적인 언어습득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2살 또는 3살 밖에 안되는 어린이들이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도 한때 어린이였기 때문에 지금 유창하게 말하는 우리의 모국어를 배웠던 것이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존재하는 이 신비한 언어능력이 존재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모국어를 어렸을 때 배우지 아니하고 지금 배우게 된다면 아주 서툴게 배우게 될 것이다(마치 영어를 어른들이 배울 때 서툴게 배우는 것처럼).

Condon 과 Sander(1974)는 어린이들의 이 신비한 언어능력을 비디오 촬영을 통하여 보여 주었다. 즉 태어난지 12시간~2주 정도밖에 안되는 갓난 어린이들에게 인간의 언어, 고립된 모음(isolated vowels),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tapping sounds)를 각각 들려주고 이 갓난 어린이들의 반응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는데 인간의 언어에는(영어이든 중국어이든) 율동적 반응(rhythmic response)을 보였으나 고립된 모음이나 두드리는 소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했다.

세상에 태어난지 12시간~2주 밖에 안되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벌써 언어의 소리와 비언어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겠는가? 어린이들 속에 어떤 선천적인 언어능력이 태어날 때 부터 존재하기 때문 일 것이다.

Chomsky(1965), Slobin(1966), McNeil(1966)과 같은 언어학자들은 어린이들의 이 신비한 언어능력을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습득장치)라고 부른다. 이 LAD는 Lado(1975), Andersson(1976), Söderbergh(1976)등의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1세 반에서 6세 사이 즉 취학전 아동들에게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고 12세나 13세경에는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속에 LAD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에 관한한(모국어이든 외국어이든 간에) 천재들이다. 어떤 언어든 간에 그 언어에 노출만 시켜 주면 그 언어를 배워 버린다. 어른들은 언어를 배울 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열심히 애를 쓰며 10여년 동안 배워도 어린이들 처럼 잘 배우지는 못한다. 어른들 속에는 LAD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선천적인 언어능력이 어린이들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찌기 영국의 심리학자 J.W. Tomb(1925 : 53)은 지적하였다.

It is common experience in the district in Bengal in which the writer resided to hear English children of three or four years old who have been born in the country conversing freely at different times with their parents in English, with their ayahs (nurses) in Bengali, with the garden coolies in Santali, and with the house servants

in Hindustani, while their parents have learned with the aid of a munshi(teacher) and much laborious effort just sufficient Hindustani to comprehend what the house servants are saying(provided they do not speak too quickly) and to issue simple orders to them connected with domestic affairs. It is even not unusual to see English parents in India unable to understand what their servants are saying to them in Hindustani and being driven in consequence to bring along an English child of four or five years old, if available, to act as an interpreter.

13세 이전의 어린이들에게만 존재하고 6세전의 아동들에게 가장 왕성하게 작용한다는 이 LAD는 참으로 희한한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LAD는 모든 인간 어린이들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며 또한 인간종족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LAD가 인간 어린이들에게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그 어린이가 어떤 인종에 속하든 간에, 또는 그 어린이의 지능이 높은 낮은 간에, 또는 그 어린이의 태어나는 곳이 현대사회이든 원시사회이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는 LAD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LAD가 인간종족에게만 존재한다는 말은 LAD가 개나 소나 고양이나 새 같은 종족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종족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2+2=4”라는 단순한 산수도 이해 할 수 없는 미련한 아이 일지라도 복잡한 언어를 쉽게 습득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LAD가 있기 때문이다. Helen Keller 여사는 귀와 입과 눈의 세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녀의 머리속에는 언어가 습득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Helen Keller에게 LAD가 있었기 때문이다.

LAD가 희한한 것이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LAD를 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언어습득 속도와 완벽성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10년이상 열심히 애를 쓰며 배우고서도 서툴게 배우는 영어를 빨리 쉽게 완벽하게(적어도 발음에 있어서 만은) 배워 버린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자(1982:81)의 글을 인용한다.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간 3살 밖에 안 되는 한국 아동이 1년 후엔 한국교포가정에 없어서는 안될 통역이 된다. 이 아이의 부모는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6년 동안,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4년 동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미국에 이민 가기 전 학원에 다니면서 수년동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열심히 영어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이나 학교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이제 겨우 배살난 이 어린아이가 부모보다 더 영어를 잘 하기 때문이다. 왜? 어린이에게는 LAD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한 LAD 라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있고 특히 취학전 아동들에게 가장 왕성하게 작용한다면 취학전 아동들의 이 LAD 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일 것이다. 취학전 아동들의 이 LAD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필자는 취학전 아동들의 이 LAD 를 조기영어읽기와 조기국어 읽기에 활용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가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취학전 어린이의 LAD 가 말에 노출 될 때 말의 습득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취학전 어린이의 LAD 가 글에 노출 될 때는 글의 습득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다.

많은 부모들이나 심지어는 언어학자들까지도 취학전 아동들의 읽기교육은 아동들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Past(1976), Röderbergh(1977), Lado(1972), Christian(1977), Doman(1964), Durkin(1966), Fowler(1962), Steinberg(1975), Stern(1971, 1977) 등과 같은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조기읽기 사례 연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취학전 아동들이 정신적 부담없이 “큰 기쁨”으로 쉽게 읽기를 습득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Doman(1964)은 그의 저서 *How To Teach Your Baby To Read*에서 “갓난 애들은 읽기를 원하며 읽을 수 있으며 읽고 있으며 읽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어린이들은 1살 때는 단어를 읽으며 2살 때는 문장을 읽으며 3살 때는 책을 읽는다”라고 말한다.

같은 저서에서 Doman 은 두뇌에 손상을 입고 식물성인간으로 태어난 Tommy Lunski 를 소개하고 있다. Tommy 는 2살때 까지도 소리나 불빛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했다. 즉 귀에다 큰 소리로 외쳐보아도 또 눈에다 밝은 불빛으로 비추어 보아도 Tommy 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했다. Tommy 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기 위해 Doman 은 하는 수 없이 Tommy 의 몸에 바늘을 찔렀다. 이 때 Tommy 는 울기는 커녕 미소를 지었다. Doman 은 이러한 식물성인간 Tommy 에게 2살 부터 읽기 교육을 시켰다. 그 결과 Tommy 는 6살 때 *Readers Digest* 를 속독하였고 국민학교 6학년생들 보다 더 잘 읽었다. 2살 때 저능아였던 Tommy 가 어떻게 6살때는 *Readers Digest* 를 속독할 수 있을 정도로 읽기를 습득할 수 있었을까? Tommy 의 LAD 가 글로된 언어에 노출되어 최대한으로 활용되었고 그 결과 글을 습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먼저 습득하고 말을 습득한 다음 글을 습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말을 쉽게 배우지만 글은 쉽게 배우지 못 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버린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각은 잘못이다.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에 노출되어 살지만 글에 노출되어 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에 노출되어 살지 않고 글에 노출되어 산다면(세상사람들이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글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즉 어린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글을 먼저 습득하고 글을 습득한 다음 말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말과 글을 배우는 것은 LAD가 있는 취학전 아동들에게 다 같이 쉽고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말을 배우든 글을 배우든 간에 이 어린이들의 LAD가 작용하여 말이나 글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은 입이요 말을 듣는 것은 귀요 글을 읽는 것은 눈이며 글을 쓰는 것은 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네가지 언어기능은 다 어린이들의 뇌에 장치되어 있는 LAD가 하는 것이다. 즉 두뇌의 LAD가 입으로 말하고 LAD가 귀로 들으며 LAD가 눈으로 읽고 LAD가 손으로 쓴다. 입과 귀와 눈과 손은 LAD의 심부름을 할 뿐이다. 취학전 아동들의 두뇌에 LAD가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들은 말이든 글이든 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취학전 아동들에게 영어읽기를 지도함에 있어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본토박이의 발음으로 영어읽기를 지도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는 그림카드와 테이프를 통하여 가르치면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 즉 16절씩 이상의 두꺼운 카드에 아동들에게 흥미 있는 사물이나 상황을 채색으로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그 그림의 사물이나 상황에 해당하는 영어를 큰 글자로 쓴다. 이 그림카드를 아동에게 보이면서 동시에 테이프를 틀어주어 각 카드에 해당하는 본토박이의 정확하고 훌륭한 영어가, 아동이 따라서 말할수 있도록 시간간격을 허용하면서, 몇번씩 반복적으로 나오게 한다. 이관영(1981) 교수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방법에 의해 약 4개월간 영어읽기를 배운 혜근과 웅근(6세와 4세)은 적어도 발음에 있어서만은 이관영교수의 발음 보다 좋았다고 한다.

앞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한국인은 바로 현재의 취학전 아동들이다. 그러므로 취학전 아동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켜야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바로 취학전 아동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Harvard 대학교의 조기아동연구소 소장 Burton White(1975)는 생후 8개월 부터 3세에 이르기까지의 가장아동교육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Chicago 대학교의 조기아동 연구가 Benjamin Bloom(1964)은 이미 4살대 인간의 50%의 지능이 개발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White 와 Bloom 은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1세기의 우리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취학전 아동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취학전 아동들에게 가장 왕성하게 작용한다는 LAD를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각 가정에서 취학전 아동들에게 영어와 국어의 읽기를 지도해 줄것을 필자는 제안하고 싶다. 취학전 아동들에게는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이며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이다. 왜냐하면 취학전 아동들에게는 부모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Model이며 가정이 가장 informal한(격식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이상적인 한국인은 한국정신에 투철하고 이중언어에 능숙한 자들이어야 한다. 이중언어에 능숙한 자들이란 국어는 물론 국제어인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국어와 영어에 능숙하여야만 세계의 이곳 저곳에 한국 고유의 문화와 얼을 심을 수 있고 국제무대에서 능능하게 댈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국력은 크게 팽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와 영어에 능숙하고 한국정신에 투철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크게 팽창시켜 줄 21세기의 이상적인 한국인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의 취학전 아동들에게 국어와 영어의 조기읽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II. 유하의 영어와 국어의 조기읽기교육

실제로 4살 7개월 된 필자의 딸 유하를 필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영어와 국어의 읽기를 실제로 가르쳤고 그 결과가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간단히 서술하겠다. 필자가 유하에게 영어와 국어의 조기읽기를 가르쳤을 때는 필자와 필자의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서술하는 것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취학전 교포아동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응용되는 것들일지라도 한국에 있는 취학전 아동들에게는 전혀 응용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단정하기가 쉽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취학전 아동들에게도 영어의 읽기에 있어서 녹음테이프를 이용하여 본토박이의 영어발음을 이용하기만 하면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유하는 1971년 3월 30일 미국 뉴올리안즈에서 태어났다. 유하의 읽기교육은 1975년 11월 1일에(유하가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에 살고 있었고 4살 7개월 됐을 때) 시작 되었고 1977년 8월 31일에(유하가 6살 5개월 됐을 때) 완

료되었다. 먼저 영어의 읽기를 가르쳤고 그 다음 국어의 읽기를 가르쳤다. 유하의 읽기교육이 시작되기 1개월전에 유하는 “ABC” 노래와 block 게임을 통하여 영어 알파벳 대문자의 각 이름을 배웠고 각 대문자들을 쓰는 것을 배웠다. 유하의 영어와 국어의 조기읽기교육은 다음과 같은 4단계에 의하여 실시됐다.

1. 암기단계 (Memorization Stage)

암기단계는 유하로 하여금 100개의 영어의 구를 암기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였다. 이 암기단계는 1975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이었다. 암기단계에서 필자는 Lado의 *Early Reading English: Phrase Book One*(1972)을 가르쳤다. 이 책은 *big dog, little dog, big cat, little cat* 과 같은 100개의 영어구를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 각 구의 밑에는 각 구에 해당하는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다.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각 구의 뜻을 그림으로 전달해 주자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각 구에 해당하는 그림 뿐만 아니라 각 구에 해당하는 flash card가 달려 있는 책이다.

필자는 이 책의 지시에 따라 그림이 달려 있는 영어의 각 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유하로 하여금 따라 읽게 하였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다가 유하가 어느 정도 이 그림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을 때 그림의 도움이 없이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flash card에 있는 영어의 구를 읽도록 가르쳤다. 이런식으로 유하의 암기단계는 1개월 동안 1주에 3회 정도(그리고 1회에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르쳤다. 가르칠 때의 모든 지시사항은 한국말로 하였다. 이 암기단계에서 관찰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하는 혼동되는 단어들을 암기할 때 유하 나뭇대로의 어떤 방법에 의하여 혼동을 피하려고 하였다. 예를들면 *cow*와 *car*의 두 단어가 혼동이 될때 *cow*에는 *w*가 있고 *car*에는 *r*가 있다는 것으로 *cow*와 *car*를 구분하였다.

(2) 유하는 한 때 “*cold*”에 *c*가 없다면 *old* 지요?”라고 물었다. 이것은 유하가 벌써 글자와 소리의와의 상관관계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s)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주는 질문이었다.

(3) 유하는 읽을 줄 아는 단어들의 철자 말하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 이유는 유하가 이미 각 글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각 글자를 쓸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4) 유하의 철자능력은 유하로 하여금 다음 세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첫째,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지며 읽혀진다.

둘째, *cow*와 *cows*와 같은 두 단어의 차이는 *cow*에는 *s*가 없으나 *cows*에는 *s*가 있다. 셋째, 단어나 구는 단어나 구보다 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5) 유하는 다음 네가지 방법으로 단어를 암기했다. 첫째 단어를 스펠링 하면서 암기했고, 둘째 단어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암기했으며, 셋째 단어를 종이에 쓰면서 암기했고, 넷째 단어를 눈으로 시각화하여 암기했다. 단어를 눈으로 시각화하여 암기했다는 말은 단어를 볼때 눈에 나타나는 단어의 영상을 암기했다는 말이다.

(6) 유하는 영어읽기의 암기단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영어 알파벳의 인쇄체 대문자에 해당하는 각 글자의 이름을 배웠고 또한 각 인쇄체 대문자의 글자를 쓰는 것도 배웠다. 그런데 회한한 것은 유하가 어느새 각 대문자에 해당하는 소문자를 혼자서 배웠다는 사실이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 유하는 가끔 가르쳐 주지도 아니한 영어의 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예를들면 작은 빗을 가리키며 *little comb*이라고 말했는데 *little comb*은 가르쳐 주지 아니한 영어의 구였다. *little comb*의 *little*은 *little clog*이나 *little cat* 같은 구에서 온 것이고, *little comb*의 *comb*은 *white comb*이나 *black comb* 같은 구에서 온 것이다. 이 사실은 유하의 언어창의성을 입증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읽기가 말하기를 돕는다는 사실도 입증하여준다.

(8) 유하에게 있어서 읽기는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가끔 유하는 필자와 또는 동생 진하와 읽기게임을 하였다. 한번은 유하가 카드를 들고서(마치 필자가 유하에게 가끔 하는 것처럼) 진하에게 읽으라고 하였으나 진하가 읽을수가 없었다. 유하는 진하에게 컷속말로 어떻게 읽는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진하는 유하가 가르쳐 준대로 읽었다. 이때 유하는 진하에게 "Very good, Chinha"라고 말하면서 격려의 손뼉을 쳤고 보상으로 코카콜라를 좀 마시라고 권하였다.

(9) 각 영어구에 해당하는 그림은 영어구의 뜻을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나 때로는 그 뜻을 애매하게 전달하였다. 왜냐하면 그림은 *content-based meaning*을 비교적 잘 전하여 주지만 *function-based meaning*을 애매하게 전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관찰 되었지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유하의 1개월 기간 동안에 걸친 100개의 영어구에 대한 암기단계는 큰 성공이었다. 왜냐하면 유하는 이 기간에 100개의 flash cards에 있는 100개의 영어구를 그림의 도움 없이도 다 읽을 수 있었고 철자를 말 할수 있었으며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분석단계 (Analysis Stage)

암기단계가 암기하여 읽는 단계라면 분석단계는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분석하여 읽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암기단계와 분석단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시기가 어느날 갑자기 유하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암기단계에서 분석적으로 읽는 경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며 분석단계에서도 암기하여 읽는 경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기단계와 분석단계 간에 한가지 차이점은 분명하다. 즉 암기단계에서는 암기가 중요한 특징이며 분석단계에서는 분석이 중요한 특징이다. 유하에게 있어서 분석단계는 대략 1975년 12월 1일부터 1977년 6월 16일 까지였다.

분석단계에서는 필자가 유하에게 영어읽기를 직접적으로 지도한 것은 아니었다. 유하로 하여금 약 100권의 쉬운 영어책들을 스스로 읽도록 하였고 필자는 유하의 묻는 말을 대답하여 주고 잘 못 읽을 때는 왜 잘 못 읽는지를 설명하여 주면서 유하가 글자와 소리의 상관관계를 어려움없이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이었다. 또 유하가 기쁨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했다. 유하는 읽고 싶을때만 읽었고 한번도 강제로 읽지는 아니했다.

이 분석단계의 읽기에서 유하는 수많은 오류를 나타냈는데 이같은 오류의 대부분은 영어가 글자와 소리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불규칙적이라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었다. 예를들면 유하는 한때 *got* 라는 단어가 *go/gow/*와 */t/* 로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gowt/* 라고 읽어야 하며 */gat/* 라고 읽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유하가 암기단계에서는 *got* 를 */gat/*로 바르게 읽었다. 유하가 암기단계에서 *got* 를 */gat/*로 바르게 읽었는데 분석단계에서는 */gowt/*로 잘못 읽는 것은 암기단계에서는 *got* 를 */gat/*로 암기하여 읽었지만 분석단계에서는 *got* 를 *go/gow/*와 */t/*로 잘못 분석하여 읽기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몇가지 다른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 shell* 을 */siyl/*로
- kneel* 을 */kniyl/*로
- kind* 를 */kind/*로
- know* 를 */know/*로
- find* 를 */find/*로
- car* 를 */kær/*로
- Bob* 을 */bob/*로

today 를 /tadey/로

do 를 /do/로

유하의 분석단계에서 관찰한 또 하나의 오류의 원인은 단어의 첫글자(word-initial)로 인한 것이었다. 어떤 단어의 첫글자는 그 단어의 첫글자로 시작하는 같은 길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다른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다. 단어의 첫글자가 이와 같은 연상작용을 일으켜 주는 것은 책을 읽을 때 왼쪽으로 부터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이고 어떤 단어를 읽을 때 그 단어의 첫글자를 제일 먼저 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horse 를 *house* 로

own 을 *one* 으로

quiet 를 *quite* 로

had 를 *hat* 로

sat 를 *sad* 로

분석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독립단계가 시작 될 무렵 유하는 전에 한번도 읽지 못한 적이 없는 새로운 단어들을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 즉 처음으로 대하는 *sight, might, tight, fight* 등의 새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는데 유하가 이같은 새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전에 읽은적이 있는 *light, right, night*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하가 이처럼 새 단어들을 창의적으로 읽기 시작하자 이제 유하에게 읽기의 독립단계가 온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였다.

3. 독립단계(Independent Stage)

독립단계는 영어읽기를 습득하고 있는 아동이 영어의 모든 규칙적인 글자와 소리의 상관관계(regular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s)를 터득하여 어떤 새로운 단어든지 간에 그 단어가 규칙적으로 발음되는 한 그 단어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독립단계를 불규칙적으로 발음되는 모든 새로운 단어들 까지도 읽을 수 있는 단계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단일 그렇게 정의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영어의 읽기에 있어서 독립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영어의 사전에 있는 불규칙적으로 발음되는 수 많은 단어들을 발음기호의 도움없이 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어의 읽기에 있어서 글자와 소리의 상관관계가 모든 단어에 규칙적이라면 영어의 사전에 발음기호가 필요 없을 것이다(국어사전에는 발음기호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한글은 글자와 소리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규칙적이기 때문이다.)

분석단계에서도 유하가 *sight, might, tight, fight* 등의 새로운 단어들 *light, right, night* 등의 유추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므로 분석단계와 독립단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분석단계와 독립단계 사이에 한가지 분명한 차이는 있다. 그것은 분석단계는 유하가 글자와 소리의 상관관계를 터득하여가고있는 단계였으나 독립단계는 유하가 이 상관관계를 터득한 단계였다는 것이다. 즉 분석단계는 유하가 부분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이 상관관계를 터득한 단계였고 독립단계는 유하가 이상관관계를 완전히 터득한 단계였다.

분석단계가 1977년 6월 16일경에 끝나고 독립단계가 6월 17일경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으로 편의상 정한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단계가 어느날 갑자기 끝나고 독립단계가 갑자기 새로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독립단계는 대략 어느 때 시작됐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느 때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는 단계이다. 왜냐하면 독립단계란 그것이 일단 시작되면 계속 독립단계로 지속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분석단계와 독립단계를 서로 구분시켜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유하가 분석단계에서 *got* 와 같은 단어는 *go/gow/*와 */t/*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gowt/*로 읽어야 하며 */gat/*로 읽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는데 독립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이와 비슷하게 주장한 단어들 *got* 라는 단어 외에도 많이 있다.) 독립단계에서 유하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 한 이유는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 *규칙적으로* 발음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규칙적으로* 발음되지 아니한 영어 단어들도 상당히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영어의 현실을 현실로서 받아 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결과로 글자와 소리의 불규칙적 상관관계로 인하여 분석단계에서 나타났던 많은 오류가 독립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4. 전이단계(Transfer Stage)

전이단계는 1977년 7월 6일 부터 8월 31일 까지의 기간으로 유하가 영어읽기를 통하여 얻은 영어읽기의 기능이 국어읽기의 기능으로 전이되는 단계였다. 즉 영어읽기에서 습득된 것들은 국어읽기에서 다시 새롭게 습득 될 필요는 없고 단지 국어읽기에 전이만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글자와 소리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영어읽기에서 배웠다면 이것을 다시 국어읽기에서 배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어읽기의 기능이 국어읽기의 기능으로 전이만 되면 될

다고 해서 국어읽기를 배우는 이 전이단계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글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유하는 국어읽기 교육을 위해서 당시 버지니아주의 알링톤에 있는 키국민학교가 교포자녀들을 위해 제공하는 한국어프로그램에 약 1달 반동안(1주에 5일간, 매일 2시간) 다녔다. 유하가 한국어 프로그램에 다닌 결과는 참으로 훌륭했다. 왜냐하면 유하가 국어읽기에 노출된 기간이 영어읽기에 노출된 기간 보다 훨씬 짧았는데도, 국어읽기가 영어읽기 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이다. 유하 자신도 자기의 국어읽기가 영어읽기 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유하의 국어읽기가 영어읽기 보다 더 훌륭한 이유는 영어읽기에 있어서는 혹 불규칙적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을 바르게 읽을 수 없지만 국어읽기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라도 다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하의 국어읽기가 영어읽기 보다 더 훌륭하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하는 당시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했다. 둘째, 국어는 글자와 소리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영어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이다. 셋째, 유하의 영어읽기의 기능이 국어읽기의 기능으로 전이 되었다. 넷째, 유하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하였다.

필자는 유하가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사랑하도록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육했고 그 결과 유하는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사랑했다. 유하가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사랑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가지만 소개하겠다. 어느날 유하는 10여명의 자기 나이 또래의 미국애들에게 둘러싸여 열심히 한국말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유하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한개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유하는 두개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부러워하는 태도로 열심히 유하의 한국말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Ⅲ. 결론 및 제언

취학전 아동들의 LAD가 말에 노출될 때 말의 습득이 자연 결과로 나타난다면 글에 노출될 때는 글의 습득이 자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실제로 알아보기 위해서), 필자는 4살 7개월 된 필자의 딸 유하에게 영어와 국어의 조기읽기를 지도한 결과, 유하는 취학전에(즉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와 국어의 읽기를 성공적으로 아무런 정신적 부담없이 습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읽기 자체를 게임처럼 즐겼다. 그러므로 취학전 아

동들의 LAD가 말에 노출 되면 말의 습득이 자연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글에 노출되면 글의 습득이 자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이와같은 결론을 근거로 몇 가지를 제언하겠다. 어떤 언어든간에 그 언어에 노출만 시켜주면 그 언어를 쉽게 빨리 완벽하게 배우게 하여주는 어떤 선천적인 LAD(언어습득장치)가 취학전 아동들에게 가장 왕성하게 작용한다면, 그리고 이 LAD가 말(Spoken language)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글(Written language)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면, 이 귀중한 LAD를 방지해 둘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LAD를 선용하는것이, 취학전 아동들을 갖고있는 부모들의 의무요 책임이다. 취학전 아동들의 이 LAD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들에게 영어와 국어의 읽기를 가르치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취학전 아동들에게 영어와 국어의 읽기를 가르치려는 부모들에게, 또한 현재 국민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교부 당국자들에게, 다 소나마 참고가 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제언한다.

(1) 취학전 아동들에게 영어읽기를 지도함에 있어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본토박이의 발음으로 영어읽그를 지도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비국인의 발음을 녹음한 테이프를 통하여 가르치면 해결된다(그림카드와 테이프를 통한 조기영어 읽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이관영(1981) 교수의 논문을 참고 할 것).

(2) 항상 아동들을 친절, 인내심, 이해심, 자부심의 태도로 대하고,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이며, 절대로 창피감이나 실패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고 부담감 없는 분위기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가르쳐야 한다. 흥미진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동들이 읽기를 게임으로 생각하고 게임으로 즐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실제로 여러가지 재미 있는 게임을 고안하여 게임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혹 아동들이 피곤하게 보이면 즉시로 읽기교육을 중지하여야 한다. 하루중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 10분이나 20분 정도이다(Söderbergh 1977, Andersson 1981). 흥미지속을 위해서는 1주에 2시간을 한 번에 가르치는 것 보다는 20분씩 매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3)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내용으로 가르쳐야 한다. 문법적으로 쉬운 문장이 아동들에게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문법적으로 제일 쉬운 문장은 아마 1형식 문장일 것이다. *I am*이라는 문장은 1형식 문장으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추상적인 뜻을 아동들이 결코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문법적으로 쉽다고 아동들이 쉽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I eat* 라는 추상적인 1형식 문장보다

는 *I am eating a candy* 라는 구체적이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3형식 문장이 아동들에게는 더 이해하기 쉽고 따라서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그 아동에게 흥미거리가 되는 것들을 골라서 가르치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4)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영어교육은 결코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영어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요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이며 가장 좋은 학생은 취학전 아동인데 이 세가지 조건이 다 가정이라는 뜻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취학전 아동들에게는 부모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model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며, 가정은 취학전 아동에게 가장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격식 없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하므로 가장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다. 또 취학전 아동에게는 LAD가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므로 취학전 아동이야말로 가장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다.

(5) 취학전 아동이 말을 배우기도 힘든데 글까지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영터리 신화를 믿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은 LAD 때문에 배우는 것이지 머리가 좋아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 $2+2=4$ 라는 간단한 산수도 못하는 어린이가(또 백치에 가까운 바보들도) 소리와 의미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말을 배우는 것은 LAD 때문이지 머리가 좋아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 LAD는 Condon과 Sander(1974)가 비디오 촬영으로 보여준 것처럼 태어난지 12시간~2주 밖에 안되는 갓난 아이들에게도 있었다.

이 LAD가 말에 노출되면 말의 습득이 자연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글에 노출되면 글의 습득이 자연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취학전 아동들을 말에만 노출 시킬것이 아니라 글에도 노출 시키면 글의 습득이 자연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어른들도 한 때는 취학전 아동들이었고 우리들이 취학전 아동들이었을 때 다들 각 가정에서 말(spoken language)을 쉽게 재미있게 아무런 부담감 없이 배웠다. 우리들이 취학전 아동들이었을 때 말에 노출된 것처럼 글에도 노출 됐었다면 말을 배운 것처럼 글도 배웠을 것이다.

(6) 말(spoken language)은 글(written language) 없이 존재할 수 있으나 글은 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글은 말을 전제로 하지만 말은 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취학전 아동들에게 영어의 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글에 달려 있는 말도 동시에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취학전 아동들이 영어의 글을 읽을 때 영어의

글도 배우지만 녹음을 통해 들려오는 그 글에 해당하는 본토박이의 말도 동시에 배우는 것이다.

(7) 마지막으로 현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한가지 맹점을 지적 하겠다. 문교부당국은 1982년 3월부터 전국의 지정 국민학교에서 4학년 중심으로 1주에 30분~1시간 정도 특활 형식의 국민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문교부의 현행국민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맹점은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만 가르치게 하고 읽기와 쓰기를 전혀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는 어린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부담이 된다는 문교부 당국의 염려 때문에 우선 듣기와 말하기만 가르치도록 하는 것 같다. 그러나(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글보다 더 쉽거나 글이 말보다 더 쉬운것이 아니라 글 보다 말에 더 많이 노출 시키면 말이 더 쉽게 습득되고 말 보다 글에 더 많이 노출 시키면 글이 더 쉽게 습득되는 것이다.

일선에서 국민학교 영어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흔한 불평중의 하나는 아동들이 듣고 말하기만 배우기 때문에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지루함을 느끼는 이유는 듣기와 말하기만 할 때 아동들의 입과 귀는 활동을 하지만 눈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아동들이 영어를 들을 때나 말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로 된 영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아동들의 입과 귀와 눈이 동시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므로 지루감을 덜 느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영어의 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어의 글을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어의 글을 전혀 보지도 못하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까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동들의 눈이 영어의 글에 반복적으로 노출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의 글이 습득 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말과 글을 동시에 가르쳐 주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동들이 혹 말을 배울지라도 그 말에 해당하는 글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쩐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글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말은 우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배웠어도 배운것 같지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말과 함께 글을 동시에 가르쳐 주

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동들이 영어의 말만 배우고 글을 동시에 배우지 아니하면 이미 배운 말도 쉽게 잊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각적인 글은 그 글에 해당하는 말을 항상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어의 말과 글을 동시에 배우면 말과 글을 동시에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지만 영어의 말만 배우고 글을 배우지 아니하면 배운 말도 곧 잊게 된다. 여기에 대한 한 좋은 예는 영어의 글은 모르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미국에 있는 교포 아동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그렇게 잘하던 영어를 몇달만에 다 잊어 버리지만 영어의 글과 말을 동시에 잘하는 교포 아동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영어의 글과 말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Selected Bibliography

- Andersson, Theodore. A Preschool Bilingual Project. In: Robert Lado and Theodore Andersson, eds., *Georgetown University Papers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Number 13: Early Reading*.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76.
- Andersson Theodore. *A Guide to Family Reading in Two Languages*. Los Angeles: Evaluation, Dissemination and Assessment Cente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981.
- Bloom, Benjamin 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4.
- Chomsky, Noam.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65.
- Christian, Chester C., Jr. Minority Language Skills before Age Three In: William F. Mackey and Theodore Andersson, eds., *Bilingualism in Early Childhood*. Rowley: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1977.
- Doman, Glenn. *How to Teach Your Baby to Read*. New York: Random House, Inc. 1964.
- Durkin, Dolores. *Children Who Read Earl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66.
- Lado, Robert. Early Bilingual Reading. In: Luis Ortega, ed., *Introduction to Bilingual Education*. New York: Anaya-Las Americas, 1975.
- Lado, Robert. Early Reading as Language Development. In: Robert Lado and Theodore Andersson, eds., *Georgetown University Papers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Number 13: Early Reading*.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76.

McNeil, D.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and G.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6.

Slobin, D. Comments on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and G.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6.

Söderbergh, Ragnhild. *Reading in Early Childhoo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77.

Stern, Aaron. *The Joy of Learning*. North Miami Beach: Renaissance Publishers. 1977.

White, Burto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Edg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5.

이관영, 초기영어교육의 중요성.

승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이옥로, "LAD와 초기영어교육", 영어교육 제23호. 한국영어교육학회. 1982.

〈Abstract〉

Theory and Practice of Early English Edu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e-school English Reading

Ok Ro Lee
(Han Nam University)

The writer tries to show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at a preschool child has a remarkable innate ability to learn or acquire language. After discussing theoretically what this innate language capacity(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is, he attempts to confirm his hypothesis that if the LAD is operative in spoken language it should also be operative in written language. His hypothesis is confirmed by an actual case study of his own pre-school daughter Yuha. The early reading in the case study of Yuha consists of four stages.

In the first stage, in which Lado's experimental edition of *Early Reading English: Phrase Book One*(1972) was taught, memorization was a prominent characteristic and seemed superior to an adult's. In the second stage, the subject's linguistic analysis was a prominent characteristic and seemed to be innate in that she was not taught to analyze language but achieved it spontaneously. In the third stage, she could read creatively and independently any regularly-pronounced words that she had not seen before. In the last stage, the transfer of skills from English to Korean was made.

After confirming his hypothesis by an actual case study, he suggests several important things, which will be useful both to the parents who want to teach their pre-school children early English and Korean reading and to the peopl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who are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with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